

호텔 한식당의 유니폼 디자인 현황에 관한 연구

김은정* · 강순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호텔 내의 한식당은 내외국인에게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유니폼을 통해서 우리의 의복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음식과 함께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한식당의 유니폼 디자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호텔 내 한식당의 이미지 提高와 함께 우리 옷의 미가 잘 표현되는 유니폼을 개발하는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특급호텔 10곳을 중심으로, 유니폼의 착용실태 및 구매방법, 현 유니폼에 대한 불만족도를 알아보았고, 한복의 利點을 살린 생활한복이 유니폼으로 착용될 때 직원들이 선호하는 생활한복 디자인에 관해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2003년 11월~12월에 걸쳐 각 호텔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SPSS 11.0을 통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유니폼의 형태에 있어 생활한복을 채택한 경우가 4곳, 서양복과 한복을 함께 착용한 경우가 1곳, 서양복에 부분적으로 한복의 장식을 도입한 경우가 1곳, 서양복을 채택한 경우가 4곳으로 분석되었다.

2. 유니폼의 착용 및 구매 실태에 있어서는, 현 유니폼의 착용동기를 한식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고, 10곳이 모두 일괄적으로 맞춤 주문하였으며, 8곳이 계절과 상관없이 1개의 유형을 착용하고 있었다. 디자인은 관리자가 선정하는 곳이 7곳, 종업원이 선정한 데가 1곳, 이외 관리자와 종업원이 함께 채택하는 데가 2곳이었다.

3. 현 유니폼에 대한 불만족도 중 형태에 관해서 '다소 불만족'인 경우가 5곳으로 50%를 차지하였다.

불만족도에 관한 20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각 호텔별 불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땀흡수가 안되는 점, 속옷이 겉으로 드러나는 점, 오염이 잘 되는 점, 소매통이 넓어 음식이 묻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니폼의 수정부위와 그 이유에 관한 문항에서는 디자인과 색상 등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답이 제일 많았다. 생활한복을 착용하는 곳에서는 몸을 숙이면 속이 보여 디자인의 수정을 요하였으며, 이외 치마의 폭이 넓다, 치마가 길다, 소매가 길다 등으로 응답해 주었다.

4. 생활한복 유니폼 착용시 원하는 디자인, 색, 형태에 관한 조사결과, 세탁이 쉽고, 구김이 안가는 원단, 수납이 가능한 디자인을 바라고 있었다. 색상은 고상하고, 깨끗하고 밝은 색감을 원하였고, 상 하의가 같은 색보다는 다른 색을 원하는 쪽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생활한복 형태에 관한 질문에서 하의길이는 발목길이, 옷의 길이는 허리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매길이는 7부 소매, 소매의 형태는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여밈 방법에 있어 저고리는 매듭단추, 치마는 지퍼를 선호하였다. 치마의 모양은 둥 형태의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현재 특급호텔의 한식당의 유니폼은 60% 정도만이 한복이나 생활한복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의 의복 문화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현 유니폼의 디자인 및 소재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응답자들의 제안을 고려한 생활한복 유니폼이 활용된다면 호텔내 종사자에게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주고, 이용자는 고객에게는 우리의 맛과 함께 복식문화를 전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